

어휘 모아 보기

01. 보는 이와 말하는 이

◆ 「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」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고, 뜻을 알고 있는 단어에 V 표를 해 보자.

화랑	☐	그림 따위의 미술품을 진열하여 관람하도록 만든 방.
척도	☐	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근거할 기준. 유 기준
속물적	☐	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.
원로	☐	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.
무진	☐	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. 유 더없이, 매우
화방	☐	그림 그리는 데에 필요한 기구나 물감 따위를 파는 가게.
과분하다	☐	분수에 넘쳐 있다. 유 과만하다
전근	☐	근무하는 곳을 옮김.
먹칠	☐	명예, 체면 따위를 더럽히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줄비하다	☐	빗살처럼 줄지어 뿔뿔하게 늘어서 있다.
비평가	☐	평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.
애호가	☐	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.
화폭	☐	그림을 그려 놓은 천이나 종이의 조각.
수장고	☐	귀중한 것을 고이 간직하는 창고.
공설	☐	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세움. 또는 그런 시설. 반 사설
브라스 밴드	☐	금관 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악대.
학예	☐	학문과 예능을 통틀어 이르는 말.
사생	☐	실물이나 경치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일.
문예	☐	문학과 예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.
조바심	☐	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. 또는 그렇게 졸이는 마음.
뒹달	☐	남을 단단히 억박질러서 혼을 냄. 유 억박
부정	☐	옳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.
장원	☐	여럿이 겨루는 경기나 오락에서 첫째를 함. 또는 그런 사람.
제재소	☐	베어 낸 나무로 목조의 건축물, 기구 따위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를 만드는 곳.
고명딸	☐	아들 많은 집의 외딸.
정구	☐	경기장 중앙 바닥에 네트를 가로질러 치고 그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아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.
사립	☐	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공익의 사업 기관을 설립하여 유지함. 유 민립, 사설 반 공립, 국립
화판	☐	그림을 그릴 때 종이나 천을 받치는 판.
교사	☐	학교의 건물.

호되다	☐	매우 심하다. 유 극심하다
달구지	☐	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.
짐	☐	(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)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 만한 분량의 꾸러미를 세는 단위.
좀체	☐	여간하여서는.
몽당연필	☐	많이 깎아 써서 길이가 아주 짧아진 연필.
병석	☐	병자가 앉아누워 있는 자리. 유 병상
차상	☐	시문을 평가하는 등급 가운데 넷째 등의 첫째 급.
차하	☐	시문을 평가하는 등급 가운데 넷째 등의 셋째 급.
특선	☐	미술 전람회 따위에서,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뽑음. 또는 그런 작품.
입선	☐	출품한 작품이 심사에 합격하여 뽑힘.
습자지	☐	글씨 쓰기를 연습할 때 쓰는 얇은 종이.
무장간첩	☐	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간첩.
영산홍	☐	진달랫과의 상록 관목.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가지 끝에 뭉쳐나고 피침 모양으로 끝이 둔하다.
신축	☐	건물 따위를 새로 만들.
천부적	☐	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. 유 선천적
명백히	☐	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게. 유 명료히
충동	☐	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. 유 본능
참관	☐	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봄. 유 입회
통보	☐	통지하여 보고함. 또는 그 보고.
중매	☐	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. 또는 그런 사람.
너절하다	☐	허름하고 지저분하다.
교단	☐	교실에서 교사가 강의할 때 올라서는 단.
서예	☐	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.
부임하다	☐	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다.
전례	☐	이전부터 있었던 사례.
구도	☐	그림에서 모양, 색깔, 위치 따위의 짜임새.
초래하다	☐	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. 유 가져오다
제외하다	☐	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하다.
이례적	☐	보통 있는 일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.
원형	☐	본디의 꼴.
반공	☐	공산주의에 반대함.
추상화하다	☐	추상적인 것으로 되다. 또는 그렇게 만들다.
이상화하다	☐	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에 비추어서 보고 생각하다.
골똘하다	☐	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아 판 생각이 없다.